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programs and times.

“불량연기 하면서 또 다른 나 발견”

영화 ‘피끓는 청춘’서 일진 영숙 역 박보영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선 사연 많은 딸(‘과속 스캔들’), 병약하지만 새침한 소녀(‘늑대소년’). 이 두 영화로 1500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 박보영. 여배우로는 드물게 총무로의 기대를 받으며...

에 가까운 흥성 사투리가 매우 낯설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차지고 맛깔스러운 사투리를 만들어냈고, 이 같은 모습은 극 중 단연 눈길을 끈다. 사실, 박보영은 비슷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다른 여배우들과는 다른 궤적을 보여왔다. 좋은 목소리, 귀여운 외모를 무기로 애달린 10대의 정남(‘과속 스캔들’)을 징그러게 소화했고, 희밀건 피부가 빛나는 ‘늑대소년’에선 폐병 앓는 양재지만 내면은 강렬한 에너지로 뿔뿔 뚫린 순이 역을 실감 나게 그렸다.



연필뉴스

영숙 역은 여러모로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불량하게 침을 빨아야했고 몸싸움 한 번 해보지 않았던 그가 감독이 요구하는 ‘리얼 개싸움의 진수’도 보여줘야 했다. 박보영이 맡은 역은 여학교 ‘싸움장’, 일진이다. 박보영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지난 16일 종로구 사간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나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며 미소 지었다.

“아직도 제 연기를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왜 저렇게 했지?’라는 후회도 들고,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들고요. 그동안의 영화가 흥행한 건 제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정 연기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 “늑대소년”을 통해 일상의 디테일을 연기하는 게 더욱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피끓는 청춘’에서 “편할 것 같았던 화내는 연기가 어려웠다”고 말하는 박보영. “연기란 때만 할 때마다 힘들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그는 요즘 부쩍 연기에 대한 허기를 느낀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중에 꾸준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있어요. 꾸준히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제 그만 쉬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목표는 다작입니다.(웃음).”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KBS ‘왕가네...’ 주말극 압도적 1위... 자체 최고 시청률 43.9%

KBS 2TV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45%에 육박하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주말극 1위를 지켰다. 20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 42회는 전국 기준 43.9%, 수도권 기준 44.8% 시청률을 기록했다.

현경)과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순정(김희정)과 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MBC 주말극 ‘황금무지개’는 13.7%,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12.8% 시청률을 거뒀다. KBS ‘정도전’은 18일 방송보다 소폭 하락한 11.8%를 기록했다.



연필뉴스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월 21일(음 12월 21일 壬辰). 36년생, 37년생, 38년생, 39년생, 40년생, 41년생 운세.

TV 하이라이트. 올릉도 산촌 마을의 겨울나기, 청년실업, 독일에서 답을 찾다, 지혁이의 잃어버린 축구선수의 꿈. 경제 위기를 이겨낸 독일의 원동력.